

조선후기 下三道 지역의 軍事編制와 軍兵組織*

유동호** / 이석린***

1. 머리말
2. 임진왜란 전후 지방군의 변화
3. 하삼도 지역 군사편제의 변화
4. 하삼도 지역 군영의 군병조직
5. 맺음말

1. 머리말

兩亂을 거치면서 국토 방위체제가 關防 중심에서 도성방어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軍제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중앙에는 5군문 등의 주요 군문들이 지속해서 설치되었고, 지방에는 속오군을 기반으로 한 영장제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속오군제와 영장제가 당시 지방군제의 기반

* 이 논문은 2012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2).

** 충북대학교 충북대 객원교수

*** 충북대학교 충북대 명예교수

이었다고는 하나, 지역별·군영별로 세부적인 방위체제와 군사편제는 각기 다르게 변용되었다. 즉, 주진 아래 독립적인 군사 활동이 가능한 3~5개의 진영을 편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었으나, 지역별·군영별로 兵種, 조직, 지휘체계 및 군수조달의 방법 등이 각기 달랐던 것이다.

최근 조선후기 군제연구의 범위는 중앙군에서 점차 지방군 관련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¹⁾ 특히 지역단위별 방위체제 및 군영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²⁾ 그런데 조선후기 지방군 체제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잡혀지지 않은 채 지역별·군영별로 세부적인 연구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선후기 지방군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
- 1) 최근 조선후기 군제사 연구동향은 다음의 연구 성과들을 참조할 수 있다.
 김우철, 「조선후기 군사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송양섭, 「조선후기 군역제 연구현황과 과제」, 같은 책, 2000.
- 2) 조선후기 지역별 군제 및 방어체제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석화, 「조선후기 황해도 연안 방위체제」, 『한국문화』 38,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 2006; _____, 「조선후기 함경도 육진지역의 방어체제」, 『한국문화』 36,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 2005; _____, 「조선후기 평안도 지역 압록강변의 방어체제」, 『한국문화』 34,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 2004; 고승희, 「조선후기 평안도 지역 도로 방어체제의 정비」, 『한국문화』 34,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 2004; _____, 「함경도 내지 진보의 변화」, 『한국문화』 36,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 2005; _____, 「조선후기 황해도 내지 방위체제」, 『한국문화』 38,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 2006; 권내현, 「17세기 전 반 대청 긴장 고조와 평안도 방비」, 『한국사학보』 13, 고려사학회, 2002; 김강식, 「조선후기 동래부의 군사조직과 운영」, 『역사와 세계』 37, 효원사학회, 2010; 김우철, 「조선후기 강원도 지방군제의 변천」, 『조선시대사학보』 24, 조선시대사학회, 2003; 노영구, 「조선후기 평안도 지역 내지 거점 방어체제」, 『한국문화』 34,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 2004; _____, 「조선후기 함경남도 간선 방어체제」, 『한국문화』 36,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 2005; 서태원, 「조선후기 해미진영 연구」, 『역사교육』 92, 역사교육연구회, 2004; _____, 「조선후기 청주진영 연구」, 『역사와 담론』 42, 호서사학회, 2005; _____, 「조선후기 충청도 안흥진의 설치와 변천」, 『역사와 실학』 50, 역사실학회, 2013; 송양섭, 「조선후기 강진병영의 지휘체계와 군수조달」, 『역사학 연구』, 호남사학회, 2013; 유동호, 「18~19세기 충청병영의 편제와 재정」, 『군사』 84, 군사편찬연구소, 2012; _____, 「조선후기 청주병영의 군사조직과 재정」, 『역사와 담론』 72, 호서사학회, 2014; 유승주·반윤홍, 『진라병영사 연구』, 조선대학교박물관, 1999; 이선희, 「조선후기 황해도 수영의 운영」, 『한국문화』 38,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 2006; 임성수, 「18세기 평안도 진보재정의 운영과 변화」, 『한국사학보』 46, 고려사학회, 2012.

속오군과 영장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인식에서 벗어나, 전체 지방군 체계를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조선후기 지역단위의 복잡한 방위체제와 군사조직에 대한 문제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조선후기 지방군제는 크게 권역별로 큰 특징을 보인다. 남부 하삼도, 중부 경기·강원·황해, 북부 평안·함경도가 그곳이다. 하삼도 지역은 전반적으로 전임병사가 파견된 主鎭 아래 전임영장이 관할하는 3~5개의 진영이 편제되어 있었고, 중부 지역은 관찰사가 겸임하는 겸임병사 아래 진영 및 방어영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북부지역은 주진 아래 別營獨鎭衛 등의 군영들이 편제되어 있었다. 하삼도 지역은 전임영장이 파견된 13곳의 진영 중 12곳이 자리 잡았던 지역으로서 속오군제와 영장제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후기 지방군제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 속에서 지역단위의 방위체제 및 군영에 대한 특징을 도출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 논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권역별로 조선후기 지방 군제를 조망하려고 한다. 먼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지방군이 변화되는 모습을 추적하면서 조선후기 지방군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보고자 하며, 다음으로 하삼도 지역³⁾ 군사편제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본 뒤 하삼도 지방군의 2/3를 차지했던 진영을 중심으로 군병조직을 파악하고자 한다.

조선후기 지방군제의 변화와 하삼도 군사편제라는 큰 범위의 주제를 단일 논문에서 다룬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감이 있다. 주제의 범위가 넓어 지역단위의 방위체제 및 군사조직에 대한 분석이 미흡할 수도 있고, 그로인해 두드러진 특징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하삼도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일컫는 말이다. 지역적으로는 湖江(지금의 錦江) 이남의 호남지방, 제천의 義林池 서쪽의 호서지방, 鳥嶺 남쪽의 영남지방으로 세분된다. 이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1377년 『高麗史』 列傳에 ‘하삼도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하삼도를 동북면·서북면과 같이 하나의 권역단위로 보는 개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위상의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조선후기 지방군의 변화양상과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넓은 범위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별·군영별 방어체제 및 군사조직 연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종합적 연구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임진왜란 전후 지방군의 변화

임진왜란 이전 유방정병과 번상정병만으로만 구분되어 운영되었던 조선의 지방군제는 양란을 거치면서 군사조직과 그 운영방식이 복잡다단해졌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의 兵制는 『經國大典』의 舊制와 임란 이후 添設된 新制가 있는데, 신제는 雜設名色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다’라고 한 柳馨遠의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⁴⁾

조선전기의 지방군은 營鎭이 설치되면서 생겨난 營鎭軍시기와 진관체제가 실시되면서 병종이 단일화된 正兵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영진군은 兵馬都節制使의 廢·復設과정에서 설치되었다. 태조 6년(1397) 兵馬都節制使를 폐지하고 각 鎭에 침절제사를 파견하면서 陸守軍⁵⁾ 일부를 鎭軍에 편입시켰다가, 태조 7년(1407) 병마도절제사를 복설하면서 진군 중의 일부를 營軍으로 편입하면서 만든 것이다. 영진군은 지방의 良丁 가운데 중앙의 侍衛牌에 배속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으로 충원하였으며, 4개의 番으로 나누어 복무하였는데, 이들은 마병으로서 조선 초기 지방군의 주력부대였다.⁶⁾

4) 本國兵制 在大典者 是謂舊制 壬辰倭亂以後 有所添設 謂之新制 近年以來 雜設名色 尤多 殆不可悉數(柳馨遠, 『礪溪隨錄』 卷21, 兵制 諸色軍士).

5) 조선 초기 지방군은 육군이었던 陸守軍과 수군이었던 騎船軍으로 편성되었다(鄭道傳, 『三峰集』 卷8, 朝鮮經國典 政典 軍制).

6) 영진군의 성립과정과 특징에 대해서는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 115~116쪽 참조.

〈표 1〉 조선 초 營鎮軍의 분포 상황 및 군정 수

도명	영진명	軍官	新白丁	正軍	守城軍	留防軍	牌屬軍	鎭屬軍	助役軍	匠人	防牌軍	계
충청도	해미현(영)	500	148		207							855
	순성진		58		50	61	300					469
	남포진		39		51	63		300				453
경상도	창원(영)	500			438							938
	울산진	399			40							439
	영일진	301			80							381
	동래진	300			80							380
	영해진	300			80							380
	사천진	300			49							349
전라도	강진현(영)			498	51				163	141		853
	옥구진			300								300
	부안진			300								300
	무장진			300								300
	조양진			300								300
황해도	해주(영)											
	풍천진				80	300					60	440
	장연진				80	300					48	428
	옹진진				80	362					60	502
	강령진				80	400				60	540	

※ 출처 : 『世宗實錄』 地理誌.

위 표에서 보듯이 영진군 내에는 다양한 병종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영진은 해안 근처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水軍鎭과의 연계를 통해 당시 서남해안에 자주 출몰하였던 왜구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내륙지역 방어에 허점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군다나 영진에 배치된 병력으로는 대규모 침략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5개 도의 총 군병 수는 8,607명이었는데, 도별로는 평균 약 2,000~2,800명이었으며 진별로는 약 300~500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즉, 영진을 해안가로 전진 배치하였던 전략은 해적을 막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으나, 이는 내륙지역 방어에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해안가의 영진 설치로 인해 발생한 내륙방어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軍翼道 體制를 거쳐 진관체제를 실시하였다. 진관체제는 전국의 각 읍을 군사적 거점으로 편성하는 체계로서 한 지역이 외적에게 점령당 하더라도 주변 지역이 항전할 수 있도록 한 방어체계였다. 그런데 진관체제는 自戰自守하는 지역방위체제였기 때문에 지역별로 충분한 군병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제도였다.⁷⁾ 따라서 진관체제의 정립과정은 지방군의 확보 및 정비과정이기도 했다. 지방군 내 다양한 병종을 正兵으로 통합하였던 조치가 대표적인 지방군 확보 및 정비 정책이었다.

조선 초 지방군은 크게 시위군, 영진군, 수성군, 翼軍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총 액수는 45,849명이었다.⁸⁾ 이들은 모두 세조대에 正兵으로 통합되어 진관체제 속에서 운영되었다.⁹⁾ 성종 6년(1475) 병조에서 밝힌 전국적인 正兵의 총 액수는 72,105명이었다. 유방정병이 25,200명

7) 진관체제의 성립과 특징에 대해서는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 연구원, 1983, 247~251쪽 참조.

8) 『世宗實錄』 地理志를 통해 지방군의 종류 및 군정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위군	영진군	익군	수성군	합계
경기도	1,713				1,713
충청도	1,974	1,766		248	3,988
경상도	2,631	3,876			6,507
전라도	1,167	2,424			3,591
황해도	2,294	2,736			5,030
강원도	2,276	25		11	2,312
평안도	2,878		14,053	789	17,720
함길도			4,472	516	4,988
합계	14,933	10,827	18,525	1,564	45,849

9) 세조 5년(1459) 변상하는 시위패 가운데 말이 있는 사람은 正騎兵·말이 없는 사람은 正步兵으로 구분한 다음, 이 모두를 正兵으로 호칭하였고, 이 모두를 正兵으로 호칭하였고, 세조 10년(1464)에는 영진군과 수성군까지 정병에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다양한 지방군들은 정병으로 통일되어 진관체제 안에서 운영되었다. 일반 농민은 정병과 수군 가운데 하나에만 속하게 되었고, 정병 대상자는 營鎮 赴防과 番上을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하였다. 『世宗實錄』 卷18, 世祖 5年 11月 1日 己卯; 『世祖實錄』 卷34, 世祖 10年 9月 20日 庚午.

이었고, 번상정병이 약 27,600명이었으며, 자체 赴防하는 토병이 19,284명(개성부 600명·평안도 12,947명·영안도 5,737명)이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성종대 지역별 정병 분포 상황

	유방정병 대상자	유방정병 (4교대)	번상정병 대상자	번상정병 (8교대)	자체 부방 (土兵)	총 군액
충청도	4,500	1,125	8,000	1,000		12,500
전라도	6,500	1,625	12,151	1,058		18,651
경상도	12,000	3,000	3,122	390		15,122
강원도	600	150	824	103		1,424
황해도	1,600	400	1,482	185		3,082
京中			448	56		448
경기			1,594	199		1,594
평안도					12,947	12,947
영안도					5,737	5,737
개성부					600	600
합계	25,200	6,300	27,621	2,991	19,284	72,105

※ 출처 : 『成宗實錄』 卷59, 6年 9月 10日 丙辰.

토병이 자체 부방하는 평안도·영안도·개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정병 총수는 약 52,821명이었다. 이 가운데 유방정병이 25,200명·번상정병은 27,621명이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번상정병이 약 2,000명 정도 더 많아 보이나, 유방정병은 1년에 4번 부방하였고 번상정병은 8번 부방하였기 때문에 실제 입역병은 유방정병이 훨씬 많았다. 유방정병의 입역병은 6,300명이었고, 번상정병의 입역병은 약 3,400명이었다. 한편 북쪽개성부 600명의 토병은 전 인원이 本府를 巡緝하였고, 평안도 12,947명·영안도 5,737명의 토병은 전 인원이 자신의 道에 부방하였다.

그런데 평안도·영안도의 병력은 18,684명으로 하삼도 유방정병(23,000명)보다 약 4300명 정도 적었는데, 이것은 남방의 왜구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더욱이 대부분의 수군이 주로 하삼도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15~16세기 국방정책은 防胡보다는 禦倭에 치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란 이전 유방정병과 변상정병으로만 구분되었던 지방군은 임란 이후 다양한 병종이 添設되면서 복잡다단해졌다. 지역별 구체적 상황을 『增補文獻備考』 卷118·119, 兵考 州郡兵을 통해 살펴보면 <표 3>~<표 6>과 같다.¹⁰⁾

<표 3> 지역별 監營軍의 병종 및 군정 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계
馬兵	200	200	1,000	600	600	1,200	1,100	4,900
束伍軍	1,900						5,000	6,900
親牙兵	2,000		600					2,600
標下軍	634	683	831	315	1,306	1,421	842	6,032
牙兵		3,500	3,100	2,000	4,500			13,100
塘報軍		96	30			200	300	626
隨率軍		225			66			291
輜重軍		380	303					683
別砲手					600			600
壯十部軍						10,000		10,000
巡別抄軍						1,600		1,600
親兵						500	200	700
砲手							100	100
鎭軍作隊							600	600
別武士	360			815	500	1,517		3,192
防守軍				236				236
계	5,094	5,084	5,864	3,966	7,572	16,438	8,142	52,160

※ 1초를 약 100명으로 환산하여 표기하였음.

10)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增補文獻備考』가 시기별 부분적인 군제개편의 내용까지 모두 담고 있지 않으나, 조선후기의 전반적인 지방군 규모와 체계를 살펴보는 데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표 3>~<표 6>의 병종 수는 1초를 약 100명으로 환산하여 표기하였다. 『증보문헌비고』에는 병종의 수를 표기하는 단위가 지역별·군영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전국의 지방군 규모와 체계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준다. 이에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전국 지방군의 규모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1초를 약 100명으로 환산하여 표기한 것이다.

〈표 4〉 지역별 兵營軍의 병종 및 군정 수

	총청	전라	경 상		황해	평안	함 경		계
			좌	우			남	북	
馬兵	700		300	600	400		3,000	1,700	400
親牙兵	1,000								1,000
標下軍	342	1,200	310	300	796	581	625	1,575	2,919
新選牙兵	1,200								1,200
牙兵		6,600		500					6,600
隨率軍		90							90
需用軍		700							700
防軍			1,200						0
親兵			700	400			600		0
主鎭軍			3,400	1,300	1,500				1,500
別砲手			300	200					0
別放射手			200						0
守城軍			548						0
差備軍			50			284			284
輜重軍			140						0
塘報軍					120				120
城丁軍						2,000		1,500	2,000
天水舊鎭軍						200			200
別隊軍						200			200
演別軍						8,000			8,000
別武士				425	500	938			1,438
攔後士						2,400			2,400
壯四部						4,000			4,000
甲士						400			400
遺軍						1,200			1,200
隨營牌					2,500	6,000			8,500
訓御別抄					1,000				1,000
親騎衛							1,000	500	0
束伍軍							400	4,000	0
行營親騎衛								500	0
계	3,242	8,590	7,008	3,300	2,696	865	4,225	3,275	14,693

※ 1조를 약 100명으로 환산하여 표기하였음.

〈표 5〉 지역별 鎭營軍의 병종 및 군정 수

	충청	전라	경 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	계
			좌	우					
馬兵	2,600	2,100	2,700	1,700	1,000			3,500	13,600
束伍軍	13,500	21,200	12,900	12,900	7,300	6,700	1,476	9,600	85,576
標下軍	1,516	1,456	836	792	495	2,865	40	2,361	10,361
塘報軍		600	176						776
隨率軍		3,570	1,914	1,901					7,385
團束水軍					400				400
牙兵						2,600			2,600
武學						4,100			4,100
精抄束伍							12,300		12,300
奴三手軍							443		443
募軍							354		354
鎭軍								18	18
防守軍									
作隊軍									
壯武隊馬兵							3,500		3,500
隨營牌							800		800
自募別隊							1,100		1,100
계	17,616	28,926	18,526	17,293	9,195	16,265	20,013	15,479	143,313

※ 1초를 약 100명으로 환산하여 표기하였음.

〈표 6〉 지역별 山城 및 기타군의 병종 및 군정 수

	전라		경상		황해	함경		평안		계
	제주 목사	산성 (5)	동래 수성장	산성 (5)	산성 (6)	남 5위	북 5위	산성	방어영 (5)	
馬兵	1,500		300			1,500	800			4,100
束伍軍	4,400	5,900	1,100	3,400		3,800	2,800			21,400
標下軍	1,216		143	380		1,440	1,304	1,046	1,503	7,032
牙兵	400		5,900							6,300
隨率軍	256	837	200	1,518						2,811
城丁軍	915			3,800		9,800	8,600			23,115
砲手	150									150
弓矢人	277									277
防軍	700							500		1,200
把手軍	35									35
守堞軍		700			550			9,801		11,051
別破陣		28						200		228
別武士				200					1,650	1,850
輜重軍				29						29
別砲手				50					200	250
塘報軍				60		280		302		642
僧軍				294						294
部將					1,300					1,300
募軍					600					600
鎭軍						1,500	2,400			3,900
攔後軍						28			500	528
壯武隊馬兵									1,600	1,600
精抄束伍									8,200	8,200
槍軍									100	100
作隊軍								30	2,000	2,030
忠衛士									700	700
甲士									24	24
遺軍								200		200
계	9,849	7,465	7,643	9,731	2,450	18,348	15,904	12,079	16,477	99,946

※ 1초를 약 100명으로 환산하여 표기하였음.

조선후기 지방군의 총 군병 수는 대략 366,543명이었으며, 도별 군액은 충청도 25,952명·전라도 59,914명·경상도 69,930명·강원도 13,161명·황해도 33,103명·평안도 91,210명·함경도 73,273명이었다. 이를 다시 북부 평안·함경도, 중부 황해·강원도, 남부 하삼도

등의 권역별로 다시 정리해 보면 북부지역은 44.8%, 중부지역은 12.6%, 남부지역은 42.5%의 군역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대부분의 유방군을 하삼도에 배치하였던 조선전기의 국방정책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조선의 방위전략이 양란을 거치면서 남쪽과 북쪽의 방어를 모두 중요시 여기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방정책의 변화 속에 각 도의 군정들은 ①감영군, ②병영군, ③진영군, ④산성 및 기타 군 등에 배속되었다. 먼저 감영군의 경우 총 16개의 병종(충청도 5개·전라도 5개·경상도 6개·강원도 5개·황해도 6개·평안도 7개·함경도 7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총 군병 수는 약 52,160명 정도였다. 각 도 감영군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병종은 마병, 표하군, 아병이었는데, 특히 아병은 약 13,100명(25%)으로 16개 병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에 충청도의 친아병 2,000여 명, 평안도의 친병 500여 명, 함경도의 친병 200여 명까지 합하면 아병은 총 15,800여 명(30%)에 이른다. 이는 아병이 감영군의 핵심병력이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병영군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좌·우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남·북도에 약 30개의 병종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군액은 약 71,124여 명이었다. 이 중 평안도 병영이 가장 다양한 병종(12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도 병영군에 공통으로 소속되어 있는 병종은 마병과 표하군이었는데, 이는 두 병종이 병영군의 핵심병력이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4개 부류의 지방군 가운데 병영군이 가장 다양한 병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각 병종의 군정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이 병영군의 특징이기도 하다.

세 번째 진영군의 경우 전국에 46개의 진영이 있었는데, 각 진영은 평균 5~6개의 병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 군액은 약 143,313명이었다. 대체적으로 마병·속오군·표하군 등이 공통적으로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 중 속오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평안도의 정초속오까지 합하면 그 군액은 97,876여 명까지 늘어나는데, 이 수치는 전체 진영군의 68%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속오군이 진영군의 핵심병력이었음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산성 및 기타 군이 별도로 존재했는데, 총 군액은 약 99,946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도에는 제주목사 휘하 군과 5개 산성군이 별도로 존재했는데, 전자는 10병종·9,849여 명, 후자는 4병종·7,465여 명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경상도에는 동래수성장 휘하 군과 5산성군이 있었는데, 전자는 5병종·7,643여 명, 후자는 9병종·9,731여 명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황해도에는 6산성군이 있었는데 3병종·2,4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함경도는 남5위와 북5위가 있었는데 전자는 7병종·18,348여 명, 후자는 5병종 15,904여 명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안도는 하나의 산성군과 5방어영군이 존재하였는데, 전자는 5병종·12,079여 명, 후자는 7병종·16,477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조선후기 지방군의 총 군액은 약 366,543명이었고, 진영의 군액이 143,313여 명(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영군이 가장 다양한 병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던 병종은 속오군이었다. 감영 속오군 6,900여 명, 병영 속오군 4,400여 명, 진영 속오군 97,876여 명(속오 85,576+정초속오 12,300), 산성 및 방어영 등의 속오군 29,600여 명(속오 21,400+정초속오 8,200)으로 총 138,776여 명이다. 이러한 사실은 속오군이 조선후기 지방군의 주력 병종이었음을 입증하나, 속오군이 조선후기 지방군 전체를 대변하는 절대적인 병종도 아니었음도 말해준다.¹¹⁾

조선후기 지방군에는 속오군 외에도 다양한 병종들이 존재했다. 가령 속오군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마병·포수·화포수·대포수·

11) 유동호, 앞의 논문, 2014, 44쪽.

별포수·창군·노삼수 등의 역종과 아병·표하군·친병·무학·장사부·수영패·성정군 등 오히려 속오군보다 그 규모가 큰 병종들도 무수히 많았다.¹²⁾ 조선후기에 다양한 병종이 신설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조선전기의 신분제도 및 군제가 무너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일례로 속오군의 편성은 양민과 천민을 혼재하여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신분관계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 병종을 신설할 수 계기가 되었다.¹³⁾ 아울러 지역에 따라 동일한 무기 및 임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불렸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 같이 조선후기 각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사정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병종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기 지방군제를 이해함에 있어 좀 더 폭 넓고 다양한 인식이 필요하다.¹⁴⁾

3. 하삼도 지역 군사편제의 변화

조선전기의 지방군은 세조 3년(1457)에 구축된 鎭管體制에 의해 운영되었다. 진관체제는 전국의 각 읍을 군사적 거점으로 편성하는 체계로서 한 지역이 외적에게 점령당하더라도 주변 지역이 항전할 수 있도록 한 방위체제였는데, 그 지휘체계는 主鎭의 都節制使 → 巨鎭의 僉節制使 → 諸鎭의 同僉節制使로 이루어졌다.¹⁵⁾ 이러한 진관체제는 16세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은 왜변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승방략

12)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3, 204쪽.

13) 속오군의 신분 및 성격 변화에 대해서는 이경주, 「조선후기 사회신분 변동문제에 대한 연구 : 군역의 양천호성과 관련된 측면」, 『울산사학』 3, 울산대학교 사학회, 1990; 장필기, 「17세기 전반기 속오군의 성격과 위상」, 『사학연구』 42, 울산대학교 사학회, 한국사학회, 1990 참조.

14) 유동호, 앞의 논문, 2014, 44쪽.

15) 민현구, 앞의 책, 1983, 247~251쪽 참조.

형태의 변형을 거쳐, 양란 이후 영장제를 기반으로 하는 진영체제로 개편되었다. 임란 이후 지방군은 『紀效新書』의 속오법에 의거하여 병영 아래에 營(1영=5사) - 司(1사=5초) - 哨(1초=3기) - 旗(1기=3대) - 隊를 기본으로 부대를 편제하였다.¹⁶⁾ 병사 예하의 영 단위 부대의 책임자가 영장이었고, 영장의 소재지는 영이 설치된 진관이라는 의미에서 진영이라고 했다¹⁷⁾

앞서 살펴본 조선후기 지방군의 다양한 병종은 主鎭(감영·병영)과 진영을 중심으로 한 鎭營體制로 묶여 있었다. 『大典通編』과 『增補文獻備考』를 통해 지역별 주진 및 진영의 전반적인 분포상황을 살펴보자.

〈표 7〉 조선후기 지역별 主鎭 및 鎭營

道別	主鎭	鎭營
충청	감영(공주) 병영(청주)	전영(홍주), 좌영(해미), 중영(청주), 우영(공주), 후영(충주)
전라	감영(전주) 병영(강진)	전영(순천), 좌영(운봉), 중영(전주), 우영(나주), 후영(여산)
경상	감영(대구) 좌병영(울산)	전영(안동), 중영(대구), 후영(경주), 수성장(동래)
	우병영(진주)	좌영(상주), 우영(진주), 별중영(김해)
경기	감영(한양) 병영(한양)	전영(광주), 좌영(남양), 중영(양주), 우영(장단), 후영(죽산), 별중영(수원), 방어영(파주)
강원	감영(원주) 병영(원주)	좌영(춘천), 중영(횡성), 우영(삼척), 방어영(철원)
황해	감영(해주) 병영(황주)	전영(봉산), 좌영(풍천), 중영(안악), 우영(곡산), 후영(평산), 별중영(산산)
평안	감영(평양) 병영(안주)	전영(숙천), 좌영(덕천), 중영(중화), 우영(순천), 후영(함흥), 별전영(용천), 별좌영(구성), 별우영(가산), 별후영(영변)
함경	감영(영흥) 남병영(북청)	전영(홍원), 좌영(갑산), 중영(영흥), 우영(삼수), 후영(덕원), 별중영(단천)
	북병영(경성)	남전위(부령), 남좌위(경성), 남중위(무산), 남우위(명천), 남후위(길주), 방어영(검), 북전위(회령), 북좌위(증성), 온성(북중위), 북우위(경원), 북후위(경흥)

16) 허선도, 「제승방략 연구」, 『진단학보』 36·37, 진단학회, 1973·1974; 「진관체제 복구론 연구」, 『논문집』 5, 국민대, 1974; 「조선시대의 영장제」, 『한국학논총』 1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91.

17) 송양섭, 앞의 논문, 2013, 33쪽.

위 표를 보면 크게 3개의 권역별로 군사편제의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①남부 하삼도, ②중부 경기·강원·황해, ③북부 평안·함경도가 그곳이다. 하삼도 지역은 전임병사가 파견되어 그 아래 3~5개의 진영이 배치되어 있었고, 중부 지역은 관찰사가 겸임하는 겸임병사 아래 진영 및 방어영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¹⁸⁾, 북부지역은 남부와는 전혀 다른 別營·獨鎮·衛 등의 군사편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기서는 하삼도 지역의 지방군의 편제와 그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겠다. 하삼도는 전임영장이 파견된 13곳의 진영 중 12곳이 자리잡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는 속오군을 편성하는 한편, 진관체제를 복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진관체제는 정립되지 못한 채 전쟁이 끝났다. 그 결과 수령들은 일반 행정만을 담당하였고, 속오군에 대한 지휘는 파총·초관 등에게 맡겨졌다. 이에 효율적으로 지방군을 지휘·통솔하기 위해 전임영장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곧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바뀌었는데, 이 조치는 곧 수령의 영장 겸직은 자연히 속오군의 부실화로 연결되었다. 그러던 중 1624년 이괄의 난과 1627년 정묘호란을 겪으면서 지방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곧 인조 5년(1627) 4월 「營將節目」을 작성하고, 전임영장을 파견하여 속오군을 그 휘하에 두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영장제는 다시 철폐되었다가 1654년 이후 재실행되어 『續大典』에 법적으로 고정되었다.¹⁹⁾ 이 때 전국 46곳의 진영 가운데 13개의 진영에만 전임영장이 배치되었는데, 강원도 삼척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삼도 지역이었다. 즉, 하삼도 지역은 국방상의 중요성과 함께 조선 후기 진영체제의 원칙을 비교적 잘 따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편제의 변화의 양상과 특징을 도출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먼저 충청도 군사편제의

18) 조선전기에는 황해병사도 관찰사가 겸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별도의 병사를 파견하였다(『大典會通』兵典 外官職).

19) 영장제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 연구 : 영장제를 중심으로』, 혜안, 1999, 67~77쪽 참조.

변화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자.

〈표 8〉 조선 전·후기 충청도 군사편제 비교

조 선 전 기				조 선 후 기		
주 진	침 절 제 사 진	동 침 절 제 사 진	절 제 도 위 진	주 진	진 영 (소 재)	속 읍
충 주 해 미	홍주	서천, 서산, 태안, 면천, 온양	홍주, 평택, 홍산, 덕산, 청양, 대흥, 비인, 결성, 남포, 보령, 아산, 신창, 예산, 해미, 당진	공 주 청 주	전영 (홍주)	서천, 임천, 한산, 보령, 청양, 정산, 비인, 남포
					좌영 (해미)	대흥, 온양, 면천, 서산, 태안, 결성, 예산, 평택, 아산, 신창, 덕산, 당진
	청주	천안, 옥천	청주직산, 목천, 문의, 회인, 청안, 진천, 보은, 영동, 황간, 청산		중영 (청주)	천안, 문의, 회인, 청산, 보은, 황간, 영동, 청안, 진천, 직산, 목천
	공주	임천, 한산	공주, 진의, 정산, 은진, 회덕, 진잠, 연산, 이산, 부여, 석성, 연기		우영 (공주)	옥천, 연기, 석성, 부여, 은진, 연산, 노성, 진잠, 전의, 회덕
충주	청풍, 단양, 괴산	충주, 연풍, 음성, 영춘, 제천		후영 (충주)	청풍, 단양, 괴산, 제천, 영춘, 연풍, 음성	

※ 출처 : 『經國大典』 권4, 兵典; 『增補文獻備考』, 兵考 州鎮兵.

조선후기 충청도의 군사편제는 병영 아래 5진영(전영·좌영·중영·우영·후영)이 편제되어 있었으며, 각 진영 아래에는 여러 속읍들이 배정되어 있었다. 좌영을 제외한 4개 진영에는 전임영장이 파견되어 운영되었는데, 각 진영은 독립적인 방어단위로 기능하였다.

후기의 충청도 군사편제는 전기의 진관체제와 비교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주진이 충주(검병사)·해미(단병사)에서 공주(검병사)·청주(단병사)로 옮겨진 점이다. 이러한 조치는 충청도 내륙방어의 강화와 충청도 역의 부담 및 지공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것이었다.²⁰⁾ 둘째 각 진관의 거진에 해당하는 침절제사진 4곳(충주·청주·공주·홍주)이 후기에는 5곳의 진영으로 변화한 점이다.

20) 유동호, 앞의 논문, 2012, 195~201쪽; 임선빈, 「충청감영의 공주 개영과 변천」, 『충청감영 400년』, 충남발전연구원, 2003, 25~30쪽 참조.

이는 효종 2년(1651) 충청병영이 해미에서 청주로 이설되면서 해미에 좌영이 새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병영이 이설되기 전 충청도는 진관체제에 따라 홍주, 청주, 공주, 충원(충주), 해미(병영 겸) 5곳의 침절제사진이 있었다. 그러나 병영이 청주로 이설되면서 영장체계의 확립과 함께 전영-홍주, 좌영-해미, 중영-청주, 우영-공주, 후영-충주의 체계로 바뀌었다. 충청병영(병사) - 5진영(영장) - 54개 속읍(各邑 수령)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가 확립된 것이다.²¹⁾ 이로 인해 홍주 침절제사진에 소속되었던 서산·태안·평택·덕산·대흥·결성·아산·예산·당진 등 9개 읍이 좌영(해미)의 속읍으로 배속되었다.

다음으로 전라도 군사편제의 변화를 살펴보자.

〈표 9〉 조선 전·후기 전라도 군사편제 비교

조 선 전 기				조 선 후 기		
주진	침절제사진	동침절제사진	절제도위진	주진	진영(소재)	속읍
전주강진	순천	낙안, 보성	광양, 구례, 홍양, 능성, 동복, 화순	전주강진	전영(순천)	장흥, 진도, 낙안, 보성, 강진, 홍양, 동복, 광양, 해남
					좌영(운봉)	남원, 곡성, 장수, 창평, 옥과, 구례
	전주	익산, 김제, 고부, 금산, 진산, 여산	전주, 정읍, 흥덕, 부안, 만경, 옥구, 임피, 금구, 용안, 함열, 고산, 태인		중영(전주)	김제, 고부, 진안, 임실, 금구, 만경, 부안
	나주	광주, 영암, 영광	나주, 광주, 함평, 고창, 장성, 진원, 무장, 남평, 무안		우영(나주)	광주, 능주, 영암, 영광, 화순, 남평, 무안, 함평, 무장
					후영(여산)	익산, 고산, 금산, 진산, 용안, 함열, 임피, 옥구, 용담
	남원	담양, 순창	남원, 임실, 무주, 곡성, 진안, 용담, 옥과, 운봉, 창평, 장수			
	장흥	진도	강진, 해남			

※ 출처 : 『經國大典』 권4, 兵典 ; 『增補文獻備考』, 兵考 州鎮兵.

21) 『孝宗實錄』 卷12, 4年 2月 11日 壬申 ; 유동호, 앞의 논문, 2012, 202쪽.

조선후기 전라도는 충청도와 동일한 주진 아래 5진영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전영·중영·우영에는 전임영장이 별도로 파견되었으며, 좌영과 후영은 각기 운봉현감과 여산부사가 영장을 겸직하였다.

전라도 5진영 체제는 진관체제의 큰 틀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부분적으로 변화가 많았다. 첫째 장흥진관이 해체되고, 그 아래에 있던 군현들이 전영(순천)의 속읍이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남원 진관의 5곳(남원·곡성·장수·창평·옥과)의 군현과 순천진관의 구례가 합하여져 좌영(운봉)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전주진관의 4곳(김제·고부·금구·만경·부안)의 군현과 남원진관의 2곳(임실·진안)이 합하여져 중영(전주)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넷째 나주진관의 7곳(광주·영암·영광·남평·무안·함평·무장)의 군현과 순천진관의 2곳(화순·능주)의 군현을 합하여 우영(나주)을 편성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전주진관의 여산·익산·고산·금산·진산·용안·함열·임피·옥구 등 9개 군현과 남원진관의 용담을 합하여 후영(여산)을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임진왜란 이후 곡창지대인 호남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라도의 전략적 거점지역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좌·우도로 분리되어 있었던 경상도의 군사편제의 변화를 살펴보자.

〈표 10〉 조선 전·후기 경상좌도 군사편제 비교

조 선 전 기				조 선 후 기		
주진	첨절제사진	동첨절제사진	절제도위진	주진	진영(소재)	속읍
상주 울산	안동	영해, 청송, 예천, 영천, 풍기	안동, 의성, 봉화, 진보, 군위, 비안, 예안, 영덕, 용궁	대구 울산	전영(안동)	영해, 청송, 비안, 예천, 풍기, 영천, 의성, 영덕, 용궁, 예안, 봉화, 진보, 영양, 순흥
	대구	밀양, 청도	경산, 하양, 인동, 현풍, 의흥, 신령, 영산, 창녕		중영(대구)	밀양, 인동, 청도, 경산, 영산, 현풍, 창녕, 자인
	경주	울산, 양산, 영천, 흥해	경주, 청하, 영일, 장기, 기장, 동래, 언양		후영(경주)	울산, 흥해, 영천, 청하, 영일, 장기, 언양
					수성장(동래)	양산, 기장

※ 출처 : 『經國大典』 권4, 兵典; 『增補文獻備考』, 兵考 州鎮兵.

조선후기 경상좌도 지방군은 주진 아래 3개의 진영과 1개의 수성장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전기와 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주진관의 양산·동래·기장을 떼어서 동래 수성장을 신설한 것이다. 동래 수성장은 동래부사가 겸임하였는데, 동래 수성장을 신설한 이유는 임란 때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된 동래 지역의 방비를 강화하고자 함이었다. 같은 이유로 이 지역에는 금정산성이 축조되어 경영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는 진관체제의 틀을 거의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전영에 순흥과 영양이, 중영에 자인이 새로 속읍으로 설정되었다. 전영과 중영에 새로 설정된 순흥·영양·자인은 진관에서 이속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군현을 행정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 조선 전·후기 경상우도 군사편제 비교

조선전기				조선후기		
주진	첨절제사진	동첨절제사진	절제도위진	주진	진영(소재)	속읍
상주창원	상주	성주, 선산, 김산	상주, 성주, 개령, 지례, 고령, 문경, 함창	대구진주	좌영(상주)	김산, 개령, 지례, 함창
	진주	합천, 초계, 함양, 곤양	진주, 거창, 사천, 남해, 삼가, 의령, 하동, 산음, 안음, 단성		우영(진주)	하동, 함양, 거창, 곤양, 합천, 초계, 사천, 남해, 단성, 산청, 안의, 의령, 삼가
	김해	창원, 함안	거제, 칠원, 진해, 고성, 웅천		별중영(김해)	함안, 칠원, 고성

경상우도의 군사편제는 진관체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진관체제 내 제진으로 편제되어 있었던 군현들과 진영체제 내 진영의 속읍들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地名의 변경과 기록 누락으로 보인다. 실례로 진주 진관의 산음은 영조 43년(1767)에 산청으로 지명이 바뀌었으며²²⁾, 같은 시기에 안음도 안의로 지명이 변경되었다.²³⁾ 결국 진주진관의 군현과 진주 우영의 속읍은 변동이 없었던

22) 『輿地圖書』 補遺篇, 慶尙道 山淸縣邑誌 郡名.

23) 『輿地圖書』 補遺篇, 慶尙道 安義縣邑誌 郡名.

것이다. 그리고 김해진관의 제진(군현)들이었던 거제·진해·웅천의 경우, 『증보문헌비고』에는 김해 별중영의 속읍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大典通編』에서는 확인된다.

하삼도의 전반적인 군사편제는 지역별로 주진(감영·병영·수영) 아래 3~5개의 진영이 있어, 그것들이 독자적으로 국방을 담당하는 체계였다. 진관체제와 진영체제(영장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진과 속읍의 역할이다. 진관체제에서는 거진 아래의 군·현들이 제진으로서 독립적인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진영체제에서는 진영만이 독립적인 군사단위로서 기능을 할뿐 나머지 군·현은 군사적 역할이 없었다.

17세기 중반 영장제가 확립된 이후 전국에 46개의 진영이 설치되었고, 이 중에 13개의 진영에는 전임영장이 파견되었으며 나머지 33개의 진영은 소재 읍의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였다(각주20 참조). 이것은 조선후기의 영장제(진영체제)는 겸임영장제가 주로 실시되었음을 말해준다. 어쨌든 영장은 정3품 무관의 자격으로 관할 군현의 군병들을 지휘하였는데, 이것은 전국 360여 개의 군현 가운데 33개 군현의 수령을 제외한 나머지 읍의 수령들은 군사지휘권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즉 33개를 제외한 나머지 군·현의 수령들은 유사시 자기 읍의 군사를 진영장에게 인계만 하면 임무는 끝났다. 더군다나 무기보관·군사훈련·군량조달 등의 軍務는 주로 座首의 임무²⁴⁾였기 때문에 수령들은 군사지휘 및 업무에 있어 제2선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대부분의 수령들은 직접 가용할 수 있는 군사가 없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군대는 설치 초기에 각 읍 속오군이 영장에게 소속되어 수령은 전혀 수하에 거느릴 병사가 없으니 이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다’²⁵⁾라는 평가는 각 지역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수령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해준다. 이 때문에 수령들은 관찰사·병사·영장 휘하의

24) 김용덕, 『한국 제도사 연구』, 일조각, 1989, 267~272쪽.

25) 『承政院日記』 680冊, 英祖 5年 3月 11日.

군사와는 별도로 군병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관청의 人吏 및 官奴 등을 부대로 편성한 이노작대였다. 이러한 당시 상황은 다음 기사에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군사제도는 고을 수령이 수하에 직접 통솔하는 군인이 한명도 없다. 소위 속오군이니, 별대니 하는 것들이 있으나 만일 싸움이 일어나면 고을 수령이 이들을 거느리고 진관에 가서 진영, 즉 영장에게 바치고 돌아와서 이노들로 대오를 편성하여 자기 고을을 지키게 할 뿐이니 향리와 노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실로 중요하다.²⁶⁾

이러한 사정으로 조선전기 진관체제 안에서 제진으로서 군사적 역할을 하였던 여러 군현들과는 달리 조선후기 진영체제의 속읍들은 주진 및 진영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할뿐이었다. 이것이 조선전기 진관체제와 조선후기 진영체제(영장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4. 하삼도 지역 군영의 군병조직

조선후기 지방군은 병영 아래 진영 등이 편제되어 있었고, 각 진영 아래 속읍들이 배정되어 있는 진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하삼도 지방군의 2/3를 차지했던 진영군의 구조와 운용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하삼도 군영의 구조 및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6) 丁若鏞, 『牧民心書』兵典 6條, 練卒.

〈표 12〉 조선 후기 하삼도 진영의 병종 및 군액

도명	주진	진영(소재)	병종 및 군액	군병총액 (보인제외)
충청도	공주청주	전영(홍주)	마병 400명(보인 413명), 속오 3,000명, 표하군 157명	3,557명
		좌영(해미)	마병 400명(보인 437명), 속오 2,500명, 표하군 286명	3,186명
		중영(청주)	마병 700명(보인 714명), 속오 2,800명, 표하군 257명	3,757명
		우영(공주)	마병 500명(보병 575명), 속오 2,400명, 표하군 588명	3,488명
		후영(충주)	마병 600명(보인 617명), 속오 2,800명, 표하군 228명	3,628명
전라도	전주강진	전영(순천)	마병 500명(보인 1,146명), 속오 4,600명(보인 6,382명), 표하군 188명, 당보군 184명, 수솔군 895명	6,367명
		좌영(운봉)	마병 200명(보인 287명), 속오 3,400명(보인 4,656명), 표하군 287명, 당보군 120명, 수솔군 492명	4,499명
		중영(전주)	마병 500명(보인 1,112명), 속오 4,600명(보인 5,757명), 표하군 454명, 당보군 59명, 수솔군 689명	6,302명
		우영(나주)	마병 500명(보인 1,150명), 속오 5,200명(보인 6,926명), 표하군 210명, 당보군 120명, 수솔군 865명	6,895명
		후영(여산)	마병 400명(보인 944명), 속오 3,400명(보인 4,663명), 표하군 317명, 당보군 117명, 수솔군 629명	4,863명
경상좌도	대구울산	전영(안동)	별대마병 800명(보인 1,790명), 속오 5,100명(보인 6,703명), 표하군 180명(보인 180명), 당보군 70명(보인 70명), 수솔군 770명	6,920명
		중영(대구)	마병 1,000명(보인 1,910명), 속오 4,000명(보인 4,820명), 표하군 252명(보인 252명), 당보군 33명(보인 70명), 수솔군 657명(보인 657명)	5,942명
		후영(경주)	마병 900명(보인 1,937명), 속오 3,800명(보인 4,657명), 표하군 404명(보인 404명), 당보군 73명(보인 73명), 수솔군 487명(보인 487명)	5,664명
		수성장(동래)	마병 300명, 속오 1,100명, 별무사 200명, 승군 300명, 표하군 143명(보인 143명), 수솔군 200명(보인 200명)	2,243명
경상우도	대구진주	좌영(상주)	마병 400명(보인 764명), 속오 3,500명(보인 4,052명), 표하군 334명(보인 334명), 수솔군 624명	4,858명
		우영(진주)	마병 500명(보인 1,040명), 속오 6,400명(보인 8,408명), 표하군 203명(보인 203명), 수솔군 810명(보인 810명)	7,913명
		별중영(김해)	마병 800명(보인 1,620명), 속오 3,000명(보인 3,352명), 표하군 255명(보인 255명), 수솔군 467명(보인 467명)	4,522명

※ 출처 : 『增補文獻備考』, 兵考 州鎮兵(1초를 약 100명으로 환산하여 표기하였음).

먼저 충청도 주진(감·병영)의 병종 및 군액을 대략 살펴보겠다. 충청도에는 2명의 병사가 존재하였는데, 공주의 검병사(감사 겸임)와 청주의 전임병사가 그들이다. 검병사인 감사 휘하에는 장교급으로 중군

1명(쌍수산성 소재)·별장 2명·천총 3명·파총 3명·百摠 3명²⁷⁾·초관 39명·知穀官 4명·旗牌官 102명·別軍官 200명이 있었고, 각 읍에 守堞軍官 1,000명·별무사 360명·마병 2초·속오 19초·친아병 20초·표하군 634명 등의 군사들이 산재되어 있었다. 한편 전임병사 휘하에는 장교층인 우후 1명(상당산성 소재)·별장 2명·파총 3명·초관 27명·지구관 6명·기괘관 43명·별군관 4명 등이 있었고, 각 읍에 수첩군관 250명·마병 7초·친아병 10초·신선아병 12초·표하군 342명 등 총 4,298명의 군병이 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충청도 5진영에는 약 17,615명(보인 제외)의 군병이 배속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전라도를 살펴보자. 전라도에는 병사 2인(검임·전임병사) 휘하에 각급 장교와 병력이 배속되어 있었다. 검병사 휘하에 중군 1명·별장 1명·천총 3명·파총 6명·초관 42명·지구관 2명·기괘관 161명·별군관 200명·마병 2초(保 444명)·아병 35초·표하군 683명·당보군 96명·수솔군 225명·치중군 380명이 있었으며, 전임병사 휘하에 우후 1명·천총 3명·파총 9명·초관 45명·지구관 17명·기괘관 88명·군관 230명·아병 66초·표하군 1,200명·수솔군 90명·수용군 700명의 군사들이 직속되어 있었다. 아울러 전라도 5진영의 총 군병 수는 약 28,926명(보인 제외)이었다.

마지막으로 경상도를 살펴보자. 경상도는 좌·우도로 분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사는 3인(감사, 좌병사, 우병사)이었다. 감사 휘하에 중군

27) 충청감사 휘하 장교 층에서 눈에 띄는 직급이 백총이다. 백총은 본래 開城의 軍務를 주관하던 管理營에 둔 중3품 서반 무관직이었다. (『大典會通』兵典 京官職) 관리영은 숙종 6년(1680) 개성에 축성된 大興山城의 관리와 개성지역의 군무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대흥산성에 파견된 堂上武官을 관리사로 승격시켜 이를 관장하게 하였으나, 숙종 17년(1691) 관리를 開城留守(중2품)가 겸하게 하였다. 이때 백총의 상관으로는 管理使 1員·중군(정3품) 1원·종사관 1원·별장 2원·천총 3원이 있었고, 아래로는 파총(중4품) 6원, 초관(중9품) 32원, 교련관 8명, 기괘관 36명, 당상군관 50명, 군관 250명과 그에 따른 군병 등이 있었다. 그런데 백총은 속오군 편제에는 없는 직급으로 하삼도 지방의 군영들 가운데 충청감영과 경상감영에서만 나타난다.

1명·별장 5명·천총 3명·파총 7명·백총 6명·초관 46명·지구관 4명·기패관 141명·군관 82명·作領軍官 700명·별무사 962명(보인 221명 포함)·마병 10초(보인 2,404명 포함)·친병 6초·아병 31초·표하군 831명·당보군 30명·치중군 303명 등이 배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좌병사 휘하에는 우후 1명·左右領別將 2명·천총 1명·파총 4명·초관 24명·지구관 8명·기패관 100명·별군관 200명·教師 24명이 있었으며, 右領兼馬隊 3초·친병 7초·주진군 34초(파임보 248명 포함)·別防射手 2초·別砲手 3초(보인 300명 포함)·防軍兼作隊 12초·수성군 548명·차비군 50명·표하군 310명·치중군 140명의 군사들이 소속 읍에 산재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상우병사 휘하에는 우후 1명·별장 1명·천총 2명·파총 4명·초관 31명·지구관 32명·기패관 38명·별군관 2명·수첩군관 938명의 장교들이 배속되어 있었으며, 별무사 425명·마병 6초(1428명)·친병 4초·아병 5초·별포수 2초·주진군 13초(파임보 483명)·표하군 300명의 군사들이 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상좌·우도의 진영과 수성장 등의 군병 총액은 경상좌도가 약 20,769명, 경상우도가 약 17,293명이었다.

3개 도 진영의 병력 수를 비교해 보면, 충청도의 병력이 가장 적다. 이는 충청도가 경상도·전라도에 비해 면적이 좁고, 인구 및 물산이 孱弱하였기 때문이었다.²⁸⁾ 그러나 군액이 적다고 해서 충청도의 군사적 중요성이 반감되는 것은 아니었다. 충청도는 서울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충청도의 군사력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충청도가 돌파되면 도성을 방어하는 京軍이

28) 『戶口總數』(奎章閣 1602)를 통해 18세기 후반 하삼도 지역의 호구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道名	郡縣數	面數	郡縣當面數	面當戶數	面當口數	里數	郡縣當里數	里當戶數	里當口數
충청	54	569	11	390	1526	7865	146	28	111
경상	71	819	12	446	1943	8760	123	48	182
전라	56	775	14	412	1575	11767	210	27	103

직접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1888년 봄에 고종이 청주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외적을 막으라는 뜻에서 鎭南營이란 이름을 하사하고, 정예 군영을 만든 사례는 충청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²⁹⁾ 즉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방군은 지리적 특성상 해안방어가 주 임무였던 것에 반해, 충청도 지방군은 수도외곽 방어를 위한 내륙방어가 주된 임무였던 것이다.

한편 하삼도의 각 지역별 군사조직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保人의 숫자이다. 보인은 正軍이 현역에 복무하는 동안 경제적 보조를 하는 壯丁들이었는데, 원칙적으로 보병에게는 1명, 마병에게는 2명이 배정되었다.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마병에게는 2명 이상의 보인을, 그 외의 병종에게는 1명 정도를 배정하였으나, 충청도에서는 마병에게 보인 약 1명만을 배정하고 있었다. 충청도만 원칙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조선후기 전라도 군영의 사례를 통해 당시 하삼도 군영들의 전반적인 군병조직과 그 특징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³⁰⁾ 전라도 5개의 진영은 ‘①전영(순천) : 3부 8사 48초, ②좌영(운봉) : 3부 6사 35초, ③중영(전주) : 3부 9사 41초 ④우영(나주) : 3부 9사 45초, ⑤후영(여산) : 3부 6사 38초’의 조직을 이루고 있었다. 아울러 5개 진영 외에 입안산성, 금성산성, 적상산성도 있었는데, ‘입안산성(장성)은 2부 4사 17초, 금성산성(담양)은 1부 2사 11초, 적상산성(무주)은 1부 1사 5초의 구조로

29) 신영우, 「1894년 동학농민군의 청주성 점거시도」, 『충북사학』 13, 충북사학회, 2002, 33쪽.

30) 하삼도 지역 군영만의 조직과 특징을 도출하려면 충청도·경상도·전라도 세 지역 군영들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사료의 한계로 전라도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하삼도 군영의 전반적인 군병조직 및 특징을 짐작하고자 한다. 하삼도 지역 군사편제를 자세히 담고 있는 『兵制總錄』은 충청도 지역의 『淸營兵制總錄』과 전라도 지역의 『完營兵制總錄』이 남아있다. 둘 중 『완영병제총록』에 保人의 내용이 명확히 남겨져 있어 조선후기 전반적인 군병 조직과 그 운영 모습을 파악하는데 좀 더 유용하다는 판단에 전라도 진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루어졌다.³¹⁾ 각 진영과 산성의 군병들은 장교였던 軍任과 일반군병으로 구분되었다. 군임은 별장·천총·파총·초관·기패관 등이며, 일반군병은 표하군·元軍·마병 등이었다. 구체적인 군병 내역을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해보자.

〈표 13〉 전라도 각 진영의 軍士 및 保人 현황

진영 (소재)	군임	병종	군병 수	보인 수
전영 (순천)	별장 2인, 천총 3인, 파총 9인, 초관 51인, 기패관 130인	표하군	682명	643명
		원군	5,596명	5,596명
		마병별장 표하군	82명	82명
		마병	555명	1,110명
		마정군	83명	없음
좌영 (운봉)	별장 2인, 천총 3인, 파총 6인, 초관 37인, 기패관 79인	표하군	407명	399명
		원군	4,203명	4,142명
		마병별장 표하군	32명	32명
		마병	555명	1,110명
중영 (전주)	별장 2인, 천총 3인, 파총 9인, 초관 51인, 기패관 87인	표하군	474명	442명
		원군	5,469명	5,469명
		마병별장 표하군	64명	64명
		마병	555명	1,110명
우영 (나주)	별장 2인, 천총 3인, 파총 9인, 초관 54인, 기패관 95인	표하군	677명	632명
		원군	6,135명	6,060명
		마병별장 표하군	97명	97명
		마병	570명	1,140명
후영 (여산)	별장 2인, 천총 3인, 파총 6인, 초관 38인, 기패관 88인	표하군	418명	398명
		원군	4,202명	4,202명
		마병별장 표하군	70명	70명
		마병	444명	888명
장성진 입암산성	천총 2인, 파총 4인, 초관 17인, 기패관 52인	표하군	248명	152명
담양진 금성산성	천총 1인, 파총 2인, 초관 10인, 기패관 58인	원군	2,173명	2,173명
		표하군	126명	126명
무주진 적상산성	천총 1인, 파총 1인, 초관 4인, 기패관 36인	원군	1,375명	1,375명
		표하군	66명	30명
총계			660명	469명
			36,018명	38,011명

※ 출처 : 『完營兵制總錄』 兵營(奎章閣 4480).

31) 『完營兵制總錄』 兵營(奎章閣 4480).

전라도 각 진영의 군병조직은 속오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즉, 전·좌·중·우·후영의 기본적인 五鎭營制를 채택하였으며, 각 營 밑에는 각 司를 두었고, 또 각 사 밑에는 다시 각 哨를 두었다. 군총 규모는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인데, 전임영장이 파견된 진영(전영·우영·중영)의 군총이 겸임영장의 진영(좌영·후영)보다 많았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자의 3邑이 大邑이고, 후자의 2읍이 상대적으로 小邑인 까닭에 군병 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아울러 해안방어가 우선시되는 전라도 지역의 특성 상 연변지역에 위치한 진영에 군병 수를 보강한 것이기도 하였다.

군임이 직임별로 일정 수 배정되었으며, 일반 군병들은 마군과 보군(표하군·원군)으로 나뉘어 각 군영에 배속되어 있었다. 역종별 액수에서 보듯이 주력은 步軍이었으나, 馬兵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편제된 정군에 배정되어 있는 보인의 수이다. 보인이라 하면 본래 正軍이 현역에 복무하는 동안 경제적 보조를 하는 壯丁들이었는데, 이들은 점차 수포군으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정군과 보인을 구분하면 전체 군병 중에서 조련 대상자와 아닌 자를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라도 전체 군병 중 조련 대상자(정병)는 36,018명이고, 아닌 자(보인)는 38,011명이 된다. 그런데 5개 진영의 보병(표하군, 원군)들에게는 비교적 보인배정의 원칙이 잘 지켜졌으나, 산성진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실례로 3개의 산성 중 금성산성만이 보인 배정의 원칙이 잘 지켜졌다. 특히 무주진 적상산성 표하군의 보인은 0.5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마병에게는 모든 진영에서 2명 이상의 보인을 배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마병의 조련이 보병보다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다음 표를 통해 충청도와 전라도 진영들의 마병 비율을 살펴보자.

〈표 14〉 충청병영·전라병영 소속 진영들의 마병 상황

충청병영	우영(공주) (4,155명)		중영(청주) (4,228명)		좌영(해미) (3,879명)		전영(홍주) (4,395명)		후영(충주) (4,130명)	
	마병	보병	마병	보병	마병	보병	마병	보병	마병	보병
	528 (13%)	3,627 (87%)	714 (17%)	3,514 (83%)	432 (11%)	3,447 (89%)	412 (9%)	3,983 (91%)	617 (15%)	3,513 (85%)
전라병영	우영(나주) (7,642명)		중영(전주) (6,714명)		좌영(운봉) (4,999명)		전영(순천) (7,193명)		후영(여산) (5,263명)	
	마병	보병	마병	보병	마병	보병	마병	보병	마병	보병
	667 (9%)	6,975 (91%)	619 (9%)	6,095 (91%)	262 (5%)	4,737 (95%)	633 (9%)	6,560 (91%)	514 (10%)	4,749 (10%)

※ 출처 : 『淸營兵制總錄』(奎章閣 4483); 『完營兵制總錄』(奎章閣 4480).

충청도와 전라도 각 진영 내 마병 비율은 약 10%였다. 마병의 운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병의 운용에 힘을 기울였던 이유는 17세기 북쪽의 여진족의 기마전술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16세기 말부터 급격히 성장한 여진족(後金, 淸)은 조선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구사하는 기마전술에 대비해야 했다. 이에 선조 대부터 마병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후금과의 대결의식을 가지고 정부를 출현시킨 인조 대에 설치되었다.³²⁾ 하삼도 지역에까지 마병을 확대 설치한 이유는 호란 이후 청이 조선의 군비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북부 접경지역에 직접적으로 군비를 증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청의 눈치를 피해 하삼도 지역에 군비를 증강시켰던 것이다. 하삼도 지역은 일본의 침입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³³⁾ 하삼도 지방의 마병 설치하는 국방의 방향이 禦倭에서 防胡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마병의 양성은 보군과는 달리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우선

32) 김중수, 『조선후기 중앙군제 연구』, 혜안, 2003, 89~91쪽.

33) 서태원, 앞의 책, 1999, 60~67쪽; 송양섭, 앞의 논문, 2013, 34~35쪽.

국가에서 각 군인들에게 말을 지급해 주어야 했다. 또한 마병들이 말을 유지할 수 있도록 步軍보다 保人을 1명 더 주어야 했으며, 급료에서도 콩 6~9두를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³⁴⁾ 이러한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마병은 그 필요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장기간의 평화로 인해 마병의 운영도 점차 부실해진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진다. 丁若鏞은 이러한 실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련하는 날이 될 때마다 고마가 사방에서 나오니 먼저 쫓아간 자라야 이를 빌리는데 큰 것이라야 나귀새끼만 하고 작은 것은 쥐만 하다 가난한 선비가 기르던 것과 장사꾼이 끌던 것을 모두 군마라 하여 관정으로 끌고 들어오니 그 말이란 코는 찢어지고 나이 어린 것들이지만 위에서 부르면 아래서 응답하여 점고한다고 한다 그 안구를 보면 가슴걸이, 안감, 등자, 목거리가 모두 없고 절고 옴 오르고 굶고 부스럼 나서 차마 바로 볼 수 없는 참상이다 남쪽 적과 북쪽 오랑캐가 내일 쳐들어온다 하여도 이따위 말들로 나가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³⁵⁾

각 군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병종은 정규 병력이었던 元軍이었다. 그러나 원군은 각 山郡에 흩어져 있었으며, 수포군의 성격이 강하였다.³⁶⁾ 따라서 실질적인 정예 병력은 표하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하군은 지방군의 모든 군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종이었는데, 이들은 각 군영 大將의 手下親兵인 아병과 함께 각 本營에서 상주하였다.³⁷⁾ 즉 각 부대의 표하군은 그 수는 적었으나 정예 병력이었던

34) 『承政院日記』 125冊, 孝宗 3年 9月 20日; 『承政院日記』 270冊, 肅宗 5年 5月 6日.

35) 丁若鏞, 『牧民心書』 兵典 6條 練卒.

36) 숙종 29년(1703)~숙종 31년(1705) 사이에 이정청의 양역변통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各營釐整廳謄錄』 兩南水軍變通節目(奎 15062)에 '산군(山郡)에 흩어져 있던 元軍으로부터 身布를 거두어 鎭 아래의 민으로 雇立시키며, 수군 신포 3필을 2필로 감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부터 원군은 당시 수포군으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37)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앞의 책, 1968, 154쪽.

것이다. 아울러 ‘표하군의 保人은 각기 官司에서 結원이 생기는 즉시 申請해야 한다’³⁸⁾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 표하군에 대한 예우가 특별했음을 알려준다. 충청도 中營의 사례를 통해 표하군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충청도 中營의 總 編伍軍兵은 4,322명이었다. 그 중 지휘관은 104명(別將 2, 把總 6, 千總 3, 哨官 33, 知穀官 1, 旗牌官 58, 旗鼓官 1)이며, 일반군병은 4,228명(馬兵 714, 步兵 3,514)이었다. 우선 馬兵은 크게 左·右別將으로 구분(左別將 소속 4哨, 右別將 소속 3哨)되어 있었는데, 左別將에는 전·좌·우·후초 458명·우별장에는 전·좌·우초 348명의 마병이 소속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步兵을 살펴보면 總 軍병 수는 3,514명이었다. 左·中·右部 밑에 각기 左·右司가 소속되어 있었고, 다시 그 밑에 4개의 哨(前·左·右·後哨)가 속해져 있었다. 步軍 1哨는 哨官 1인과 일반군병 12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³⁹⁾

이 가운데 표하군은 營장 직속 250명, 左·中·右部의 千總 직속 각 24명, 각 천총 아래 左·右司의 把總 직속 각 26명, 左·右 別將 소속 각 18명이 있었다. 한편 초관에게는 지휘할 編伍軍兵만 있을 뿐, 직속 표하군은 배정되지 않았다. 中營의 각 장교 층에게 직속된 표하군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충청도 中營의 標下軍 내역

직위	표하군병 종류 및 수	합계
營將(1명)	軍務兵房 1, 討捕兵房 1, 知穀官 1(隨率 2), 旗鼓官 1(隨率 2), 旗牌官 58(隨率 93), 軍務軍官 50, 討捕軍官 30, 前部軍 11	250명
千總(3명)	旗手 7, 軍牢 2, 唵羅手 1, 輜重 1, 書記 1, 大砲手 1, 馬丁 1, 鼓手 1, 鉦鉞手 1, 錚手 1, 喇喇手 2, 廚後 1, 瓊哨手 2, 火兵 2	72명
把總(8명)	旗手 7, 軍牢 2, 唵羅手 1, 廚後 1, 馬丁 1, 書記 1, 錚手 1, 鼓手 1, 鉦鉞手 1, 瓊哨手 2, 輜重 1, 大砲手 1, 火兵 2	208명
別將(2명)	旗手 4, 軍牢 2, 唵羅手 1, 書記 1, 錚手 1, 喇喇手 2, 鉦鉞手 1, 馬丁 1, 輜重 1, 廚後 1, 鼓手 1, 火兵 2	36명

※ 출처 : 『淸營兵制總錄』(奎章閣 4483).

38) 『新補受教輯錄』戶典 收稅條.

39) 『淸營兵制總錄』(奎章閣 4483).

장교 층에게 배속되었던 충청도 중영의 표하군 총액은 566명으로 전체 군액의 약 13%였는데, 충청도 다른 진영들의 표하군 비율도 비슷했다. 실제 전영 11.8%, 좌영 13.7%, 우영 12.7%, 후영 14%였다.⁴⁰⁾ 아울러 중영 표하군 부대에 배속되었던 세부 병종들을 통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영장 표하군 가운데 토포병방 1명과 토포군관 30명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후기의 영장이 토포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런 특징은 하삼도에서 두드러진다. 본래 병영 및 수영의 虞侯가 토포의 책임을 주로 담당하였고, 그 임무를 실제 수행할 수 있도록 휘하에 討捕軍官·討捕兵房·捕校·捕卒 등을 배속시켰다. 그런데 영장이 토포사를 겸임하면서부터 삼남의 병영에는 토포와 관련된 인원이 보이지 않고, 진영에서만 관련 인원들이 발견된다.⁴¹⁾ 실제 충청도의 경우 5鎭營에만 영장 표하군 내에 토포병방 1명과 토포군관 30명이 소속되어 있었다.⁴²⁾ 이것은 삼남의 영장이 토포사로서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포군병도 속오군병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속읍을 설정하여 병력을 배정하였다. 전라도의 경우 운봉 좌영·전주 중영·나주 우영이 별도 속읍을 통해 토포군병을 충당하고 있었다. 좌영은 담양·순창을, 중영은 태인·정읍을, 우영은 장성·고창·홍덕을 토포군을 징발하는 속읍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전영과 후영은 별도로 토포군병을 징발하는 속읍 없이 속오군 속읍에서만 토포군을 징발하였다.⁴³⁾ 그런데 이 시기 토포군관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收布를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것 같다.

40) 충청도 각 진영의 조직구조는 동일했으며, 표하군병 수는 전영 전체군액 4,534명 중 표하군 537명·좌영 3,879명 중 534명·우영 4,155명 중 531명·후영 4,130명 중 579명이었다.

41) 서태원, 앞의 책, 2002, 78~79쪽.

42) 『淸營兵制總錄』(奎章閣 4483).

43) 『軍國總目』全羅道(奎章閣 12195).

다음의 사료들을 살펴보자.

㉔ 竹山府使 朴時佐가 아뢰기를 본 고을은 討捕衙門이나 소위 討捕軍官은 3명뿐이고, 또 급료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데 어떻게 搜捕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 楊州牧使 李重祜가 말하기를, 신도 이 일에 대하여 소회가 있으므로 감히 아뢰겠습니다. 광주 토포영이 양주에 이속된 지는 지금 얼마 안 되었으나 군관의 料額이 전혀 없는 것은 죽산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이 본 고을에 부임한 뒤에 바로 광주 진영 때의 설시를 물으니 料米를 받는 군관 자리가 수십여 명이고, 요미를 내는 근원은 閑散人 6백여 명을 널리 뽑아 身役으로 정하여 각각 6두씩의 쌀을 받아 立役者에게 나누어주었다 하였습니다. 지금 광주의 예에 따라 옛날에 없던 閒丁을 창설할 수는 없으나 본 고을은 각종 耗穀이 그 수가 많으니 若干石만 떼어낸다면 요액으로 分定할 수 있겠습니다.⁴⁴⁾

㉕ 황해병사 金亨魯의 장계입니다. …… 본영에 토포군관 2백 명이 있었는데 지난 癸丑年 査正때에 그 명색을 없애버리고 지금껏 변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 본영의 토포군관은 額數가 매우 많고, 명색은 討捕라고 하지만 사실은 軍布를 받는 군관이므로 계속년 査正 때에 과연 혁파되었으나 兵營에 포교 명색이 없는 것은 아무래도 구차한 일이고, 또 鄉將官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모집하여 廳을 설치하면 良丁을 잃을 염려도 없겠습니다.⁴⁵⁾

㉔사료는 죽산부사 朴時佐가 토포군관의 수가 부족하고, 그들에게 줄 급료도 없어서 토포 업무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니, 양주목사 李重祜도 양주도 다를 것 없다고 영조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광주 진영은 양주로 移屬되기 전에는 閑散人인에게서 6두씩 거두어 토포군관의 料米를 지급하였다고 하니, 토포군관은 본래 급료를 받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㉕사료를 보면 토포군관은 오히려 군포를 납부하는 군관으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선후기 토포군관은 급료를 받는 직업군이었으나, 점차 수포군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44) 『備邊司謄錄』 129冊, 英祖 31年 8月 7日.

45) 『備邊司謄錄』 126冊, 英祖 29年 12月 9日.

표하군의 두 번째 특징은 전투 병력이 아니라 장교 층의 편의와 군무를 보좌하기 위해 배속되었던 지원 병력이라는 점이다. 哮羅手·大砲手·鼓手·鉾鉞手·鎗手·喇喇手·瑣吶手 등은 軍樂手들었고, 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던 軍牢와 기록을 맡았던 書記는 장교 층의 군무를 보좌하였으며, 밥 짓는 일을 했던 火兵과 廚後는 취사병이었음이 이것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중영의 총 군병 4,322명 중 초관들에게 편제되어 있었던 군병 4,228명은 편제상의 속오군일 가능성이 높으며, 표하군 556명이 실제로 입역하여 진영의 여러 임무를 수행하였던 실질적인 병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표하군은 아병과 더불어 조선후기 지방군 병종 가운데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병종 중의 하나였다.

한편 지방군에는 표하군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병종이 있는데, 그것이 아병이다. 아병은 원래 지휘체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감사의 직할병력을 마련해주기 위해 설치되었다. 조선후기 지방군 지휘체계는 ‘감사-병사-영장’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그런데 감사는 병사에 대한 지휘권을 지니지만, 實戰 시 실질적 군사지휘권은 武官인 병사에게 있었다. 이 때문에 감사는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병력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 사료에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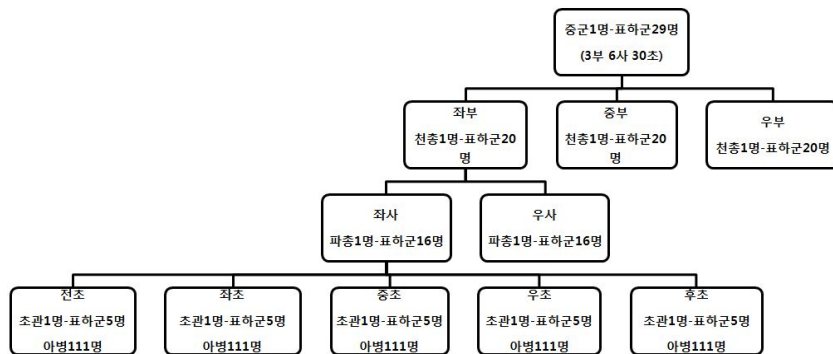
병사는 전장으로 속오를 거느리고, 감사는 병사를 절제하여 다만 조령만을 전달한다 하지만 거느릴 수 있는 군졸이 없어 혹 사변이라도 발생하면 그 몸도 스스로 지키지 못할 것이니, 어찌 수족을 움직이겠는가?⁴⁶⁾

지휘체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감사는 유사시에 대비한 별도의 병력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감사의 직할 병력인 아병이 만들어진 것이다. 전라감영의 사례를 통해 아병의 구조와 군역을 자세히 살펴보자.

46) 『承政院日記』 409冊, 肅宗 29年 1月 12日.

전주감영의 아병 부대는 中軍이 총지휘관이었으며, 3部 6司 30哨로 조직되어 있었다. 좌·중·우의 3개 부는 千總이 1명씩 배치되어 각 부를 총괄하였다. 매부는 각 좌·우의 2사로 편제되었는데 그 책임자는 把總이었고, 사는 각 전·좌·중·우·후의 5개 초로 구성되었으며 그 책임자는 초관이었다. 중군·천총·파총·초관 등의 각 장교들에게는 별도의 표하군이 배정되었으며, 각 초에는 아병이 111명씩 배속되었다. 전라감영에 아병으로 편제된 군병 수는 30초=3,330명 정도였으며, 장교와 그 휘하의 표하군까지 합하면 전라감영 아병의 총 액수는 3,705명(지휘관 40명, 표하군 335명, 아병군 3,330명)까지 늘어난다. 전라감영 아병 조직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주감영의 牙兵 編制 및 額數



※ 출처 : 『完營兵制總錄』全羅監營(奎章閣 4480).

아병도 속읍에서 인원을 충원하였다. 전라감영의 아병속읍으로는 전주·남원·금산·장수·용담·고산·고부·영광·무장·담양·곡성·구례·순창·창평·옥과·금구·김제·임피·함열·익산·용산·여산·홍덕·옥구·만경·부안·진안·임실 등 29개 군현이 설정되어 있었다.⁴⁷⁾

47) 『軍國總目』全羅道(奎章閣 12195).

조선후기 아병은 국방에 있어 중요한 병종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군제는 급할 때 믿을 것이 속오군과 아병뿐이다’⁴⁸⁾라는 언급에서 당시 아병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아병도 점차 收布軍으로 변질되었고, 급기야는 私奴로만 충원되어 그 질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 같은 사정은 정조 4년(1780) 훈련대장 具善復이 軍政 및 軍備의 폐단을 지적하는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속오군과 아병은 곧 싸움에 나아가는 군졸인데, 모두 良賤으로 充定하다가 中卍이래로 고쳐서 私奴로 團束하였습니다. 均役한 뒤부터 良軍은 단지 1필의 배를 바칠 뿐인데, 사노는 한 해 동안 내내 그 주인에게 사역되고도 쌀을 바치고 操鍊에 나아가며 허다한 雜役에서도 도리어 良役보다 심한 것이 있습니다.⁴⁹⁾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조선후기 하삼도 각 군영들의 주요 병종들은 설치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점차 수포군으로 변질되어갔다. 그렇다면 각 군영의 실제 입역자들은 누구였을까. 명확한 史料없이 각 군영의 군사들 중 실제 入役者와 納布者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휘체계 및 급료의 유무로 대략적인 측면은 엿볼 수 있다. 군영의 지휘체계는 지휘관 - 從事官 - 將官 - 軍官(장교) - 軍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종사관에는 비장, 장관에는 별장·파총이, 군관(장교)에는 초관·대변군관·수첩군관·수술군관·기고관·지구관·기패관 등이 해당되었다. 종사관과 장관 층은 상급 군임이었으며, 장교 이하의 부류는 하급 군임이었다. 이들 중 상급 군임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주로 실제 군무에 종사한 부류들이었다.⁵⁰⁾ 아울러 군임들의 給料 有無로도 실제 군무 종사자를 확인할 수 있다. 급료 유무에 따라 군임들을 분류해보면,

48) 『英祖實錄』 卷18, 英祖 4年 7月 13日 壬戌.

49) 『正祖實錄』 卷9, 正祖 4年 2月 21日 庚午.

50) 손숙경, 「조선후기 동래지역 무임집단의 조직과 운영」, 『사회와 역사』 74, 한국사학회, 2007, 263~264쪽.

우선 급료를 받고 군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있었고, 다음으로 군무에 종사하지 않고 무예만 연마하는 閑良軍官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軍保와 다름없이 군역만을 부과된 채 명칭만 軍官인 부류들이 있었다.⁵¹⁾ 이 중 軍임 집단의 주축은 급료를 받고 실제 군무에 종사하는 부류였다.

경상도 동래부의 경우 상급 軍임들 중에서는 중군·별장·천총·백총 등이, 하급 軍임들 중에서는 지구관·초관·수문장 등이 급료를 받고 군무에 종사하였다.⁵²⁾ 이들 외에 대부분의 軍관들은 번전을 내거나 번전을 면제받는 부류들이었다. 동래부 軍임들의 급료 유무에서 주목할 점은 급료의 양과 소속 軍營의 위계에 따라 軍관들의 실제 직무와 위계질서가 정해졌다는 것이다.⁵³⁾ 즉 높은 軍營에 소속되어 급료를 많이 받던 상급 軍임들이 실질적인 군무 종사자였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삼도 각 軍營들의 실제 군무 종사자는 급료를 받는 우후·과총·별장 등의 상급 軍임과 초관·지구관·기패관·수첩 軍관 등의 하급 軍임이라는 것을 대략 알 수 있다.⁵⁴⁾

5. 맺음말

임진왜란 이전 조선의 지방군은 유방정병과 번상정병으로만 구분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다양한 병종이 添設됨으로써 지방군의 종류가 복잡다단해졌다. 크게 감영군·병영군·진영군·산성 및 기타군으로

51) 정만조, 「군역법의 선무군관·한유자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사연구』 18, 한국사연구회, 1977, 95쪽.

52) 민선희, 「조선후기 동래의 향반사회와 무청: 조선후기 향반사회의 지배구조와 사회이동 문제에 대한 시론」, 『역사학보』, 역사학회, 1993, 111쪽; 손숙경, 앞의 논문, 2007, 265쪽.

53) 손숙경, 앞의 논문, 2007, 264~268쪽 참조.

54) 유동호, 앞의 논문, 2014, 56~57쪽.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군영에는 속오군·표하군·아병 등 다양한 병종들이 존재하였다.

전체 지방군 액수는 약 366,543명(감영군 : 약 52,160명+병영군 : 약 71,124명+진영군 : 약 143,313명+산성 및 기타군 : 약 99,946명)이었다. 이 중 진영의 군액이 약 143,313명(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속오군이 전체 병종의 약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 수치는 속오군이 조선후기의 지방군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며, 속오군도 지방군의 일종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조선후기 지방 군제를 이해함에 있어 좀 더 폭넓고 다변화된 인식이 필요할 듯하다.

하삼도 지방군은 공통적으로 主鎭(감영·병영) 아래 3~5개의 진영이 편제되어 있었고, 각 주진과 진영에는 屬邑들이 배정되어 있었다. 이 체제가 조선전기의 鎭管體制와 다른 점은 각 주진(병영, 진영) 아래에 諸鎭 대신 속읍이 배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진관체제에서의 제진들은 독립적으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진영체제에서의 속읍들은 병영 및 진영들의 경제적·군사적 지원만을 할뿐이었다.

하삼도 군영의 군병조직은 속오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군사들은 장교였던 군임과 일반군병으로 구분되었다. 각 군영의 군사들은 步軍과 馬兵으로 나뉘어졌고, 이들에게는 경제적 보조를 해주는 軍保가 배정되었다. 각 군영의 軍保 배정실태를 보면, 보군은 1:1의 군보 배정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나, 마병은 1:2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다. 이는 조선후기에 마병이 지방군의 주요 병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마병의 운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운용한 이유는 17세기 이후 청나라의 기마전술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하삼도 지역의 국방정책이 禦倭에서 防胡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병의 운용도 오랜 평화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점차 부실해졌다.

하삼도 군병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주요 병종은 표하군과 아병

이다. 하삼도의 표하군은 충청도 中營의 사례로 보아 討捕를 위한 토포병과 장교층의 軍務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병이 대부분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아병은 實戰時 지휘체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감사에게 직할병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으나, 그 실효성이 인정되어 각 군영에 확대되었던 병종이었다. 초기에는 별도의 牙兵屬邑을 설정하여 징발하였으나, 점차 收布軍으로 변질되었고 급기야 私奴로만 충원되었다. 두 병종은 지방군의 주요 병종이었던 속오군이 점차 虛泄化되면서 지방군의 정예 병력으로 활용된 듯하다. 그러나 이들도 점차 수포군으로 변질되어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결국 하삼도 각 군영의 실제 입역자는 급료를 받는 우후·파총·별장 등의 상급 군임과 초관·지구관·기패관·수첩군관 등의 하급 군임으로 그 폭이 좁아졌다.

[원고투고일: 2014. 9. 30, 심사수정일: 2014. 11. 20, 게재확정일: 2014. 11. 21]

주제어 : 하삼도, 속오군, 감영, 병영, 진영, 속읍, 마병, 표하군, 아병, 군보

<ABSTRACT>

The change of local military forces and the military organization in 'hasamdo' area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Yu, Dong-ho / Lee, Seok-rin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the local military forces in Joseon became very complex in its kind as various army branches were newly added to it. The local military forces could be largely classified into 'gamyong-gun', 'byeongyeong-gun', 'jinyeong-gun', 'sanseong and others-gun' on 'gunyeong' level. Under each 'gunyeong', various 'byeongjong' such as 'sogo-gun', 'pyoha-gun' and 'ahbyeong' were set up. Total number of local military forces were about 366,543 soldiers. Among them, 'jinyeong-gun' was the most on 'gunyeong' level with about 143,313 soldiers (39%) and 'sogo-gun' was the most with the weight of 38% on 'byeongjong' level. This number implies that 'sogo-gun' did not represent the whole local military force during late Joseon period and 'sogo-gun' was just one of the branches of the local military force.

The local military force in 'hasamdo'(the three provinces of Chungcheong-do, Jeolla-do and Gyeongsang-do in the south) was consisted of 'gamyong' or 'byeongyeong' as its 'jujin' and 3 to 5 of 'jinyeongs' under it. Each 'jujin' and 'jinyeong' was allocated of its own 'sokeups'(supporting towns). The difference of this organization from the military organization during early Joseon period 'jingwan' system was that 'sokeups' were allocated under each 'jujin'('byeongyeong' or 'jinyeong) instead of 'jejins' in early Joseon period. The 'jejins' in the 'jingwan' system performed

independent military role; however, the 'sokeups' in 'jinyeong' system just gave economic and military support to 'byeongyeongs' and 'jinyeongs'.

The organization of 'hasamdo' local military force was based on the 'sogo' law. The soldiers in each 'gunyeong' were consisted of officers and soldiers and they were again classified into 'bogun' and 'magun'. For the economic support of regular military force, 'gunbos' were allocated. Though not every foot soldier had one 'gunbo', most cavalry soldier had 2 'gunbos'. It implies that cavalry was the major force in local military force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hough it cost a lot to operate a cavalry, the economic support principle for cavalry was kept to prepare for the cavalry tactics of Ching dynasty of China since 17th century. This implies that the defense policy of 'hasamdo' was shifted from 'eo-wae' (defense against Japanese invasion) to 'eo-hu'(defense against Chinese invasion).

The common major branches in 'hasamdo' military organization were 'pyoha-gun' and 'ahbyeong'. According to the case of 'jungyeong' in Chungcheong-do, it was possible to assume that the 'pyoha-gun' in 'hasamdo' were mostly 'topobyeong' for catching thieves and 'silmubyeong' who were assistants to officers. Meanwhile, 'ahbyeong' were soldiers reporting directly to the administrative governors who were not in the commanding line during the real war. Since the effectiveness of 'ahbyeong' was acknowledged, it was expanded to each 'gunyeong'. 'Ahbyeong' also had 'sokeups'(supporting villages). However, 'ahbyeong' gradually changed to 'supo-gun' consisting of private slaves. It is believed that 'pyoha-gun' and 'ahbyeong' were utilized as elite forces of local military force while 'sogo-gun' gradually disappeared. However, 'pyoha-gun' and 'ahbyeong' also caused many negative effects as they changed to 'supo-gun'.

Key Words : hasamdo, sogo-gun, gamyeong, byeongyeong, jinyeong, sokeup,
mabyeong, pyoha-gun, ahbyeong, gunbo